


정말 뜬금없이 지식iN이 하고 싶어져서, 아까부터 지금까지 51개의 답변을 했다.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 위주로 답변했다.

출 > 프로필



밤팔이
최초답변일 2016.05.23.
[활동공약서 보기 >](#)

파이썬 생활필수책 개발자
C, Python 사용에 익숙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블로그에서 개발과 일상이 섞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onjun7> [수정](#)

취득 자격 [관리](#)
설정된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오픈런에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이 있다면
프로필에 취득 자격을 노출해보세요.

주요 활동 분야 [관리](#)
주요활동분야가 없습니다.
주요활동분야는 채택답변이 5개 이상 있는 2단계 이하 디렉토리 중
에서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주로
답변하는 디렉토리로 설정해주세요.

내공
7,223

초수 [초수](#) [공수](#)

53 전체답변 | **17** 채택답변 | **89.5%** 답변채택률

중수 까지 남은 채택 답변 **3**

- 내공순위 | 11,164,904위
- 질문 | 전체질문 5건 | 답변 받은 질문 3건
- 전체마감률 100%
- 답변채택률 66.7%
- 받은추천 | 총아요 5 | 유익해요 0
- 재밌어요 0

도움을 준 사람 수 [관리](#)
37

지식iN 답변을 하면서 느낀 점.

1.

답변 작성 전까지 아무 답변도 없었는데, 작성하고 나니 먼저 답변이 달려서 채택을 놓치는 경우에 꽤나 슬프다.
이건 그나마 답변이라도 달리지, 코드 작성하고 정리해서 글까지 다 썼는데 질문이 삭제되면 억장이 무너진다.
작성자가 글 지우는 것에 큰 패널티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답변이 달린 질문은 지울 수 없으니, 일단 작성중이라고 답변을 달아 놓고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듯.

2.

답변자를 고려한 질문이 많지 않다고 느꼈다.
답변하기 좋게 질문을 작성해야 더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는 아는데 어느 것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의 경우 코드를 캡처 사진보다는 텍스트로 올려주어야 답변자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는다.

3.

이래도 되나?
수행평가, 과제, 시험 문제로 보이는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답변해줘도 되나 싶은 생각.
대부분 답변이 숙제 대행에 가깝다.
미래 교사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다.

엑스퍼트 한 번 해보고 싶다.

지식iN 지존등급 이상이며 관련 지식iN 분야에서 채택 답변수 300건 이상이거나, 정보처리기사이거나, 블로그로 IT
테크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올해 안에 조건 하나는 충족하지 않을까?